

국수·빵 등 맛과 믿음 아우른 음식인문학

성스러운 한끼
박경은 지음



화를 지배해온 종교는 그 요소를 구성하는 기초다"라고 강조한다.

책은 한마디로 맛과 종교의 실크로드를 중흥무진 누비는 '음식인문학'이다. 책에는



중세시대 교회로부터 돈을 주고 버터 섭취권을 사는 행태와 육류 섭취가 금지된 사순절 기간 소시지를 먹은 '소시지 사건'이 종교개혁의 불을 당겼다. <서해문집 제공>



없는 일이었다. 츠빙글리 사제는 루터와 마찬가지로 "사순절 육식 금지는 성경에서 찾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의 두부 전래는 통일신라 즈음으로 추정된다. 중국과의 불교 교류가 활발했던 시기다. 고려와 조선에서도 두부는 왕가와 양반가 등에서 인기 있는 음식이었다.

특히 조선시대 두부는 사찰에서 만들어졌다. 억불정책 탓에 불교가 위축됐지만 왕실을 수호하고 제사를 담당하는 능침사찰을 두었다.

능침사찰의 주요 임무가 제사 음식인 두부 만들기였다. 조포사(造佛寺)라고 부르기도 한 것은 '조포'가 '두부를 만든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사찰에서 두부를 만들다 보니 자연히

스님은 두부를 제조하는 장인이었다. 콩을 구해 두부를 만드는 과정은 보통 번거로운 일이 아니었다. 오죽하면 '전생에 지은 죄가 커서 금생에 두부를 만든다'는 이야기가 나왔을까."

저자는 중동 지역의 디저트가 단 이유를 낚시와 식습관에 결부한다. 술을 금기시하는 문화로 차와 음료가 발달했다. 더운 날씨로 지친 몸을 회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설탕을 많이 넣는다는 것이다.

책을 읽다보면 식욕만큼이나 지적 욕구가 솟구친다. 책의 이면에 깔린 저자의 인식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 '상대의 식문화에 대한 낯설이 상대의 세계를 거부하는 주된 요인이라는 것'이다.

<서해문집·1만6000원>
/박성현 기자 skypark@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오래된 것들을 생각할 때에는=올해로 등단 40년이 되는 고형렬 시인의 열한 번째 시집이다. 2018년 유심작품상 수상작 '어디서 사슴의 눈도 놓여가나'를 비롯해 삶에 대한 회의와 허무로 가득 찬 98편의 시를 4부로 나누어 실었다. 시인은 담백하면서도 진중한 시적 성찰과 시공간의 경계를 넘나드는 무한대의 상상력이 빛나는 형이상학적 사유의 세계를 펼쳐 보인다. <창비·9000원>



▲불혹의 페미니즘=일본의 대표적인 페미니스트 우에노 지즈코의 거침없는 발언을 기록한 책이다. 우에노는 1970년대 '우먼리브(Women's liberation)' 운동을 겪고 20대에 페미니즘에 입문, 이후 50여 년을 페미니즘의 최전선에서 싸워왔다. 책은 1980년부터 2009년까지 우에노가 발표한 글들을 엮은 것으로



적인 면모를 소개한다. <소소의책·2만7000원>

▲미래의 일자리와 기술 2050=2050년,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실행 전략을 제시한 책. 이 책은 미래에 우리가 직면할 수 있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이 시나리오와 실행 전략은 50개국 각 분야 전문가 450여명이 3년 동안 연구한 결과물이다. 시나리오 제시에 그치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이루기 위한 실질적인 211개의 실행 전략도 제안한다. <비판복스·2만원>

▲아인슈타인이 괴델과 함께 길을 때 과학 작가이자 철학자인 저자 짐멜트가 과학과 수학, 그리고 철학사에서 중요한 분기점이 된 쟁점과 주제를 다룬다. 과학자인 아인슈타인을 비롯해 수학자 에미 뇌터부터 컴퓨터 선구자 앨런 튜링, 프랙털의 발견자 브누아 망델브로에 이르기까지 유명한 사상가뿐만 아니라 학계 또는 대중에게 확대받은 사상가들의 인간

<스핑크스·1만5500원>
▲아인슈타인이 괴델과 함께 길을 때 과학 작가이자 철학자인 저자 짐멜트가 과학과 수학, 그리고 철학사에서 중요한 분기점이 된 쟁점과 주제를 다룬다. 과학자인 아인슈타인을 비롯해 수학자 에미 뇌터부터 컴퓨터 선구자 앨런 튜링, 프랙털의 발견자 브누아 망델브로에 이르기까지 유명한 사상가뿐만 아니라 학계 또는 대중에게 확대받은 사상가들의 인간

어린이·청소년 책

▲노아의 스마트폰=인터넷에서의 '나'와 실생활에서의 '나'는 다른 사람일까? 주인공 노아는 스마트폰으로 친구들과 채팅도 하고 유명한 사람들을 팔로우하는 법도 배우면서 행복했지만, 문득 '자신이 얼마나 오래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는지' 궁금해진다. 어느 날, 노아는 SNS에 올라온 사진 한 장을 보고 충격을 받는다. 책은 노아의 일상을 통해 스마트폰의 올바른 사용법을 알려준다. <나무야·1만3000원>



▲엄마는 좋다=엄마의 육아 일기를 꺼내어 읽으며 자신에 대한 엄마의 사랑을 확인하는 딸의 시선에서 쓰였다. 딸의 목소리를 빌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이름 '엄마'에게 고맙고 미안하고 사랑한다고 전한다. 채인선 작가의 글과 김선진 그림작가의 섬세한 감성이 돋보이는 그림이 만나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포근한 엄마의 품을 아름답게 펼쳐 보인다. <한울림어린이·1만3000원>



▲마음 약한 고슴도치=사사건건 참견하는 친구들 때문에 갈팡질팡하던 고슴도치가 자신의 생각대로 결정하게 되는 과정을 그렸다. 어느날 블랙베리를 따려는 고슴도치 앞에 까마귀, 여우 등이 나타나 자신만의 방법으로 블랙베리를 다루라고 떠들어 대기 시작하고 친구들의 목소리에 고슴도치는 주눅이 들고 만다. 스웨덴 작가 울리가 케스테레는 소심하고 마음 약한 고슴도치의 모습을 통해 서로의 생각을 존중해야 한다고 전한다. <문학과지성사·1만3000원>



어려운 미술과 가까워지는 친절한 안내서

우리 각자의 미술관

최혜진 지음



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저자는 지식에 기대지 않고 그림을 마주하는 경험을 사람들은 왜 이리 어려워하는지, 미술(관)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부담감, 걱정, 위축, 당황의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졌고, 미술을 여러 사람이 지금보다 자유롭게 즐겼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 책을 썼다.

최혜진 작가의 새 책 '우리 각자의 미술관'은 미술 감상이 즐거워지는 근사하고 독특한 길라잡이로, 책을 읽다보면 아무 질문이나 편하게 던질 수 있는 친절한 개인 선생님을 옆에 둔 기분이 든다. 미술을

전공하지는 않은 그녀는 미술사나 미술이론의 지식을 갈무리하기 위해 책을 쓰는 대신 그림과 자신이 어떤 식으로 내적 대화를 나누었는지에 대한 글을 써왔고, 그 감성이 그대로 이번 책에도 담겼다.

저자는 "이 책은 이론서가 아닙니다. 어떤 미술이 어렵고, 미술관 가기가 부담스러운 증상이 나타날 때 톡 털어놓듯 활용할 수 있는 실용서, 작품을 어떻게 봐야 할지 막막할 때 자그마한 힌트를 건네는 책"이라고 말한다.

책은 모두 4장으로 구성돼 있다. 1장 '미술관 씨, 친해지고 싶어요'는 왜 우리가 미술과 멀어졌는지, 미술관에 들어서는 걸 왜 부담스러워하는지 들려주며 2장 '그림에게 묻고 답하기'에서는 그림을 마주하고 자기 안에서 떠오르는 작은 느낌, 인상, 연상, 기억을 통해 감상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3장 '있으려나 미술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는 2장에서 공부한 재미있게 그림을 보는 다양한 방법을 실험하는 가상의 미술관을 꾸며놓고 외부에서 제공되는 해석이나 설명 없이 '나'를 개입시키면서 그림과 온전히 만날 수 있는 장이다.

작가는 회화, 그 중에서도 18-20세기 인물화를 중심으로 6개의 전시실을 큐레이팅했다. '이야기 상상하기', '기억 호출하기', '감정 이입하기', '달은볼 찾기', '의문 낚아채기', '거부반응 응시하기'라는 주제로 구성된 6개의 전시실에 둘러일리아 레핀의 '예상치 못한 방문객', 케테 콜비치의 '빵을!', 르네 마그리트의 '이미지의 배반' 등 다양한 작품을 감상하고 예시 질문에 답한다.

4장 '다시 세상의 미술관으로 나아가는 당신께'는 책을 덮고 현실로 돌아가는 독자를 위해 미술(관)과 가까워질 노하우를 제공한다.

<자기만의 방·1만5000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창사 32년 (주)YHB ECO

www.yhbeco.co.kr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창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로 14 대동테크노타운12차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